



원청교섭

비긴즈

2026-5호

진짜 사장을 찾아서

발행일 2026.8.26.(수) | 발행처 금속노조 원청교섭 투쟁본부 | 발행인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 | 편집 정책실 ☎02-2670-9502 | SNS ○ 금속노조

한국지엠이 ‘진짜 사장’ 맞다 “교섭요구 공고하라” 인천지노위 인정

인천 지노위가 금속노조가 한국지엠 원청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인정했다. 한국지엠이 하청비정규직노동자들의 사용자가 맞다는 의미다. 그동안 한국지엠은 ‘계약서를 쓴 사용자가 아니’라며 하청 업체 뒤에 숨어 교섭 요구 사실조차 공고하지 않은 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김태훈 금속노조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장은 “노동부가 교섭 회피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원청 현대모비스의 교섭거부 편든 중노위 조정미개시 결정 규탄

중앙노동위원회가 금속노조가 현대모비스 원청을 상대로 낸 쟁의조정신청에 ‘조정미개시’ 결정을 내렸다.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아 조정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다. 원청의 위법한 교섭 거부를 노동조합의 자격 결격사유로 둔갑시킨 셈이다. 노조는 실제 지배력을 가진 원청이 교섭 공고 절차를 무시하는 것만으로 법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모순을 지적하고, 원청교섭 쟁취 투쟁과 교섭창구단일화 폐기 투쟁을 연계·확장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가 책임져라” 현대자동차 하청비정규직노동자들 구슬땀 투쟁

중앙노동위원회가 8월 31일 현대자동차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판정회의를 예고한 가운데, 현대차 하청비정규직노동자들이 연일 구슬땀 투쟁에 나서고 있다. 현대차 원청 또한 다른 자본과 마찬가지로 원청 교섭 요구에 ‘사용자가 아니’라는 말로 책임 회피 중이다. 현대차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중노위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8월 10일 이후 세종시 중노위 앞에서 기자회견, 선전전 등 투쟁을 전개해 왔다. 앞서 울산지노위는 심문 과정에서 노조법 개정 취지 자체를 거부하는 질의를 하고, 판정문을 통해 현대차를 의도적으로 편드는 등 개정 노동법을 앞장서 무력화했다.



조선업 생산 80% 담당 하청 노동자, 원청 책임 분명하다



김동하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

생산 주역은 하청 노동자, 돌아오는 것은 책임 회피

2026년 7월 기준 HD현대중공업에는 원청 노동자 15,228명, 협력사 노동자 24,036명으로 총 4만 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61%가 하청 노동자이며, 물량팀(재하도급)까지 포함하면 실제 조선업 생산의 약 80%를 하청 노동자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업은 하청 노동자의 손을 거치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가동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원청 자본은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하청 노동자의 안전할 권리와 노동조건 개선 요구를 외면하며 책임 회피에 급급합니다.

임금·복지·안전까지 결정하는 진짜 주인 원청 자본

조선업 하청 노동자의 임금과 복지 수준은 원청이 책정한 기성금에 의해 좌우됩니다. 일터의 위험 요소를 개선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원청 안전 투자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지급된 하청 노동자 동일 성과급은 개별 하청업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원청 자본이 지급 시기와 대상, 기준 금액을 직접 결정하여 집행했습니다.

이는 조선업 원·하청 계약이 단순한 도급 관계를 넘어서는 “고효율·저비용”으로 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자본의 구조적 장치임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에도 지연 전략과 회피로 일관하는 원청 자본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지난 3월 10일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HD현대중공업 원청은 여전히 지연 전략을 펼치며 원청 교섭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말로는 교섭하겠다고면서, 실제로는 원·하청 간 차별을 전제로 두고 교섭 원칙과 의제를 일방적으로 해석·해태하고 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교섭을 요구하는 하청 노동자들을 기만하는 행태입니다.

갈라치기와 노노 갈등을 넘어, 전체 노동자 단결로 승리하자

자본의 이윤 탐욕과 정권의 편향된 노동 탄압 정책은 현장을 지속적으로 후퇴시켰고, 노노 갈등을 유발하여 노동자를 길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지부는 더 이상 자본과 정권의 갈라치기 공작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22년 전 “하청노동자도 인간이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라고 외쳤던 박일수 열사의 간절한 정신을 가슴에 새깁니다. 현대중공업지부는 금속노조 및 사내하청지회와 함께 원청교섭 포문을 열겠습니다. 원청과 하청, 정주와 이주의 경계를 넘어 노동자 계급적 단결을 도모하고 모두가 일할 맛 나는 일터,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투쟁에 나서겠습니다. 동지들의 많은 관심과 뜨거운 연대를 호소드립니다. 투쟁!